

Part II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유연근무제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통상의 근무 시간, 근무일,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제도로,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등의 방식이 있다. 시간선택제는 통상의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방식이고, 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150개 기업 중 92.8%가 제도 시행 결과에 만족했다. 근로자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에 달했으며, 기업 측에서도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서울경제(2016.06.27.)에서 재구성

<제시문 4>

“자,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라. 엄석대도.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다른 그 어떤 반보다 훌륭한 반을 만들어봐라. 너희들은 이미 회의 진행 방법도 배웠고 의사를 결정짓는 과정과 투표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그냥 곁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겠다.”(중략)

잘못된 이해나 엇갈리는 의식 때문에 아무리 교실 안이 시끄럽고 학급의 일이 갈팡질팡해도 담임 선생님은 철저히 모른 척했다. 토요일 오후 자치회가 끝없는 입씨름으로 서너 시간씩 계속돼도, 급장 부급장이 건의함을 통해 밀고된 대단치 않은 잘못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는 소동이 나도 언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 충고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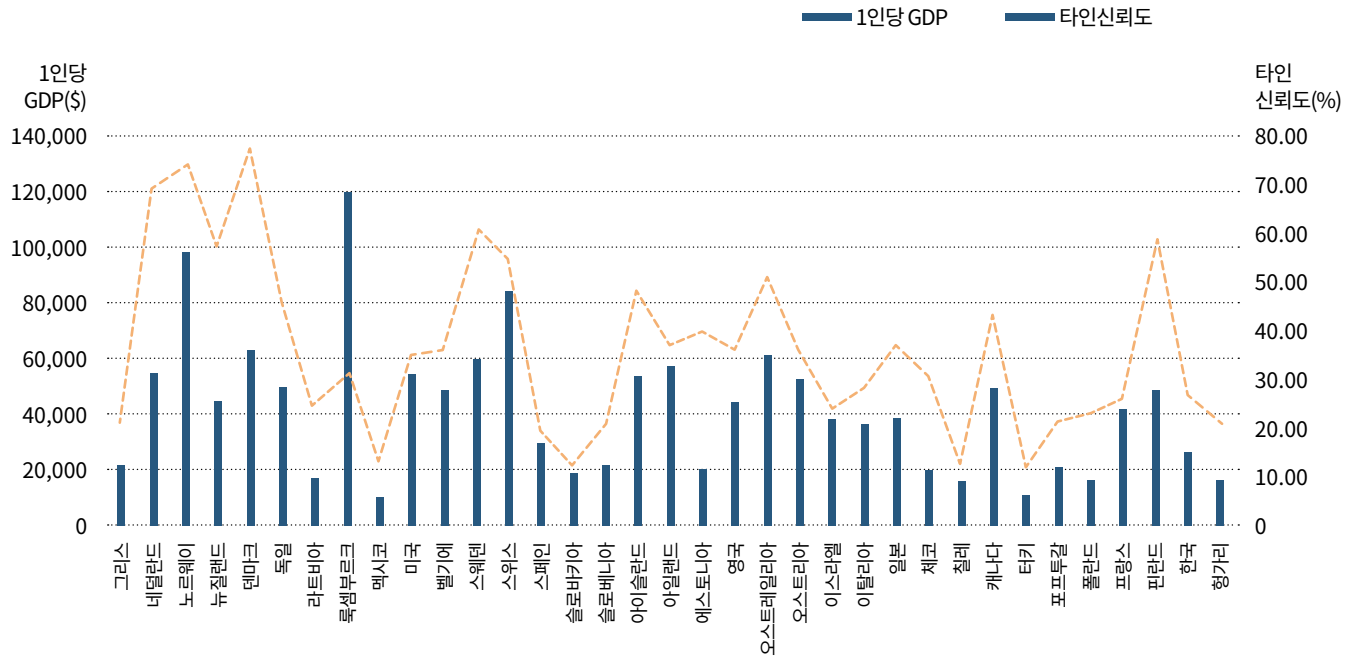
<제시문 5>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관한 이론이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를 속이고 변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행위자에게는 행동의 원칙이 있다. 즉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용의자 두 명이 검찰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이들의 자백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두 개의 방에 용의자들을 격리해 놓고 두 사람에게 각각 제안을 한다. “만약 당신이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풀려나고 다른 사람은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당신이 10년 형을 받고 다른 사람은 풀려난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한다면 둘 다 법정에서 정상 참작으로 3년 형을 선고받는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으로는 유죄선고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죄명으로 각각 6개월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과연 두 용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 재구성

〈자료〉 국가별 1인당 GDP 및 타인신뢰도



출처: OECD Data (2014)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문제 3]의 결과와 〈제시문 5〉의 ‘행동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용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그리고 용의자가 〈자료〉에 함축된 내용을 의사 결정에 반영했을 때, 용의자는 어떤 선택을 할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